

경제주평

- 3%대 성장이 남긴 과제,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
- 경제성장률 2026년 3.5%에서 2027년 2.4%로

목 차

■ 3%대 성장이 남긴 과제,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

- 경제성장률 2026년 3.5%에서 2027년 2.4%로

Executive Summary	i
1. 대외 경제 환경	1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	7
3. 한국 경제 전망	14
4. 시사점	24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본부	:	주 원 연구본부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경제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이예람 선임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3%대 성장이 남긴 과제,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

- 경제성장률 2026년 3.5%에서 2027년 2.4%로

■ 대외 경제 환경

①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중동전쟁發 에너지 공급 충격 완화와 세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27년 세계 경제는 지경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 글로벌 교역량 증가 등으로 '26년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 7월 전망에 따르면 '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로 '26년의 3.0%에서 약 0.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교역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를 비롯한 기술 관련 교역 확대 등으로 세계 교역증가율이 '26년 3.5%에서 '27년 4.3%로 회복될 전망이다.

(선진국) 미국은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유로존은 에너지 공급 충격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감세 정책의 효과, AI 관련 투자 지속 확대 등으로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7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6년 2.3%보다 소폭 둔화된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존은 에너지 가격의 점진적 안정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 경제성장률이 '26년 0.9%에서 '27년 1.2%로 개선되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신흥국 및 개도국)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의 성장효과로 인해 전체 신흥국 및 개도국 경제성장률이 '26년 3.8%에서 '27년 4.5%로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내수 부진, 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제조업 생산, AI 산업 관련 수출 호조 등이 성장의 버팀목이 되겠으나,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6년 4.6%, '27년 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기저효과, 원유 생산·수출 회복 등으로 '27년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금리) 미 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률, 전조한 고용 등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

박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화된 상황이다. 한편, BOK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와 이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현재 금리 수준(3.00%)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환율)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및 수급 구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는 美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美 신인도가 저하되면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달러화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유입 지속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27년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완화, 구조적인 석유 수요 둔화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며 배럴당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중동 일부 산유국의 생산 시설 복구 지연 등으로 원유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원자재 가격 또한 중동전쟁으로 악화된 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상 기후 등에 따른 가격 상방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의 배경)

(‘26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국내 소득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으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외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부문의 회복,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더해지면서 총량 지표상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6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전망 시점(‘26년 4월)보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7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세계 교역 회복 등으로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그 파급효과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세계 교역량도 개선되면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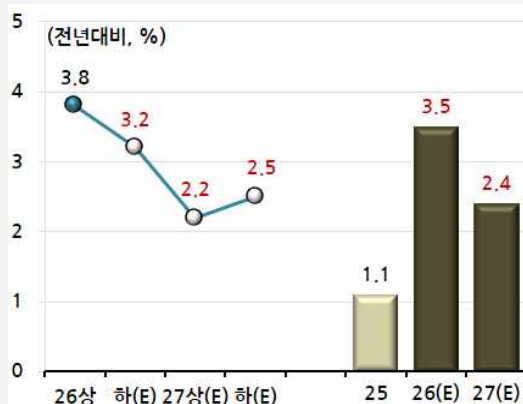
년에 비해 대외 여건은 다소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AI 투자 지속 확대로 '27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기업 실적 및 가계 소득 여건 개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재정지출 등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26년 하반기 이후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금융 여건 악화 등은 외수 호조가 내수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국내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AI 투자 및 반도체 경기의 향방이 '27년 경기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3.5%	⇒	2.4%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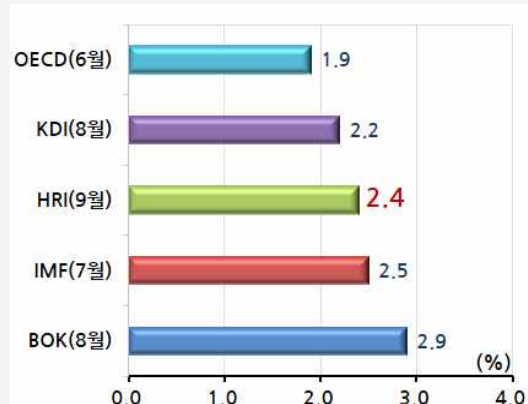
'27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수출의 내수 부문으로의 일부 파급효과 및 정부의 확장 재정 등으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수의 경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20.9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로 내수 부문에도 일정 수준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은 3.5%, '27년에는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겠으나 역기저효과 등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세로는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2%, 하반기 2.5%의 상저하교의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가 발생하거나 중동전쟁, 미-중 갈등 등 지경학적 리스크가 재확대될 경우 내·외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한다.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7년 성장률 전망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2.4%	⇒	2.0%
	(2026)		(2027)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6년 중동전쟁 추경 효과, 실질총소득 증가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27년에는 3%대의 최저임금 상승률, 수출 호조의 낙수효과 등이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심리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6년 높은 증가세로 인한 역기저효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상승기에 돌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증가율은 '26년 2.4%에서 '27년 2.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추세로는 '26년 상반기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역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저하고의 모습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증가율	5.3%	⇒	3.7%
	(2026)		(2027)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역기저효과 등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은 소폭 둔화할 전망이다. '26년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메가사이클 및 수출 증가세에 따르는 생산설비 증설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7년에도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 지속,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 본격화,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여건 악화**, 전년도 높은 증가세에 따른 역기저효과, 대미투자 본격화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여력 감소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7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6년 5.3%보다 낮아진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세는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5%,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어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증가율	△1.0%	⇒	0.7%
	(2026)		(2027)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저점 통과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긍정적 여건과 부정적 여건의 혼재로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26년 상반기 동행지표인 기

성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수주도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27년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토목의 경우 '27년 SOC 예산이 28.9조 원으로 '26년 대비 4% 증가했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토목 부문의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부문은 건축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축착공률이 '26년 중 100%를 넘어서면서 착공 이연 물량이 점차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건설공사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등 그간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던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증가율은 '26년 $\Delta 1.0\%$ 에서 '27년 0.7%로 미약하나마 증가세로의 전환이 전망된다. 추세로는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0.8%, 하반기 0.5%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50.8%	⇒	2.9%
	(2026)		(2027)

수출증가율은 '26년 50.8%에서 '27년 2.9%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7년 상반기에도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겠으나, 역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I 투자 수요 위축,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와의 공급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둔화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입증가율	20.6%	⇒	4.2%
	(2026)		(2027)

수입증가율은 '26년 20.6%에서 '27년 4.2%로 둔화될 전망이다. '27년 상반기 5.6%, 하반기 3.0%로 수입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역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3,077억 달러	⇒	3,063억 달러
	(2026)		(2027)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6년 3,077억 달러에서 '27년 3,063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27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561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그보다 소폭 낮은 1,502억 달러가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수급 리스크 등으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위축될 경우 흑자 규모가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상수지	4,293억 달러	⇒	4,196억 달러
	(2026)		(2027)

경상수지 흑자는 '26년 4,293억 달러에서 '27년 4,19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27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16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2,032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는 상품수지(무역수지) 흑자 축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2.3%
	(2026)		(2027)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효과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원/달러 환율 또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300원 후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거나 이상 기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수요측 물가 압력은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로의 과급효과가 커지면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년 2.6%에서 '27년 2.3%로 둔화할 전망이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2.2%, 하반기에는 소폭 높은 2.4%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실업률	2.9%	⇒	2.9%
	(2026)		(2027)

실업률은 '27년 2.9%로 '26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7년 상반기 실업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소폭 낮은 2.9%가 예상된다. 경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큰 폭의 개선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취업자수증감	11만명	⇒	15만명
	(2026)		(2027)

신규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는 '26년 11만 명, '27년 15만 명으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5만 명, 하반기에는 14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가 개선되면서 신규 취업자 수는 전

년보다 소폭 늘어나겠으나, 자동화, 무인화 등의 확산으로 주요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약화되면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시사점

3%대 성장이 남긴 과제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은 건전성 확보와 성장 기반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셋째,** 통화정책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성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체감 물가 안정화, 자산 시장 불확실성 제거, 소비 촉진 세제 도입 등의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투자 회복을 통해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물가 불안 및 금리 상승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완도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7년 한국 경제 전망표(2026년 9월) >

구 분		2025	2026			2027(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1.1	3.8	3.2	3.5	2.2	2.5	2.4
	민간소비 (%)	1.5	2.6	2.2	2.4	1.9	2.1	2.0
	건설투자 (%)	△9.7	△1.5	△0.6	△1.0	0.8	0.5	0.7
	설비투자 (%)	1.5	5.4	5.1	5.3	3.5	3.9	3.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1,231	1,910	2,383	4,293	2,164	2,032	4,196
	무역수지 (억 달러)	774	1,374	1,703	3,077	1,561	1,502	3,063
	수출증가율 (%)	3.8	48.2	53.2	50.8	7.8	△1.4	2.9
	수입증가율 (%)	0.0	16.8	24.3	20.6	5.6	3.0	4.2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2.5	2.7	2.6	2.2	2.4	2.3
실업률 (%)		2.8	3.2	2.5	2.9	3.0	2.9	2.9
취업자수 증감 (만 명)		19	11	12	11	15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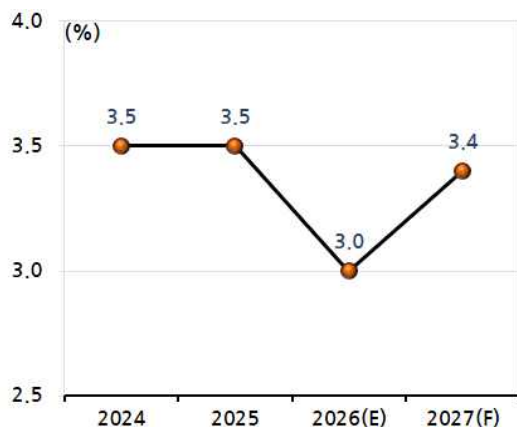
1. 대외 경제 환경

①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중동전쟁發 에너지 공급 충격 완화와 세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

- '27년 세계 경제는 지경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 글로벌 교역량 증가 등으로 '26년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
 - IMF 7월 전망에 따르면 '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로 '26년의 3.0%에서 약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글로벌 AI 기술 사이클 영향력 약화, 주요국 통화 긴축 및 금융 여건 악화 등의 리스크도 상존함
- 한편, '27년 국제교역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를 비롯한 기술 관련 교역 확대 등으로 세계 교역 증가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관세정책의 부작용이 이어지겠으나, 무역 전환 및 우회 교역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관련 교역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 교역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IMF 7월 전망 통계 기준으로 세계 교역증가율은 '26년 3.5%에서 '27년 4.3%로 회복할 전망이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6).

<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6).

○ (선진국) 미국은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유로존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 완화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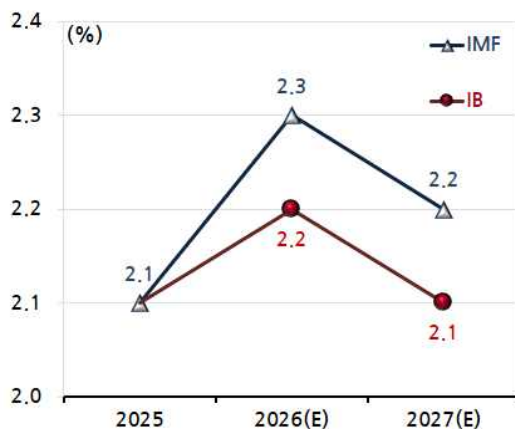
- (미국)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이 성장세를 견인하여 2%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IMF는 '27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6년 2.3%보다 소폭 둔화된 2.2%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IB 전망치도 비슷한 관점 '26년 2.2% → '27년 2.1%으로 성장률을 예상함
- '27년에도 민간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감세 정책 One Big Beautiful Bill Act 효과, AI 관련 투자 지속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2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유로존) 에너지 가격의 점진적 안정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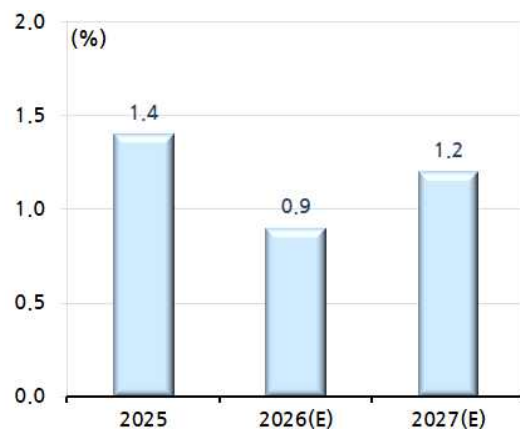
-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6년 0.9%에서 '27년 1.2%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주요 경제권 중 독일 '26년 0.8% → '27년 1.2%은 기저효과, 투자 회복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기대됨
- 에너지 가격 충격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실질구매력 개선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와 국방비, 인프라 투자 관련 정부지출 확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6), Bloomberg.

<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6).

○ (신흥국 및 개도국)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의 성장 효과로 인해 전체 신흥국 성장세는 개선될 전망

- (중국) 중국은 내수 부진, 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반도체, 로봇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 생산 및 AI 산업 관련 수출 호조 등이 성장의 버팀목이 되겠으나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27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6년 수준 4.6%에서 다소 둔화된 4.1%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신흥국)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아세안-5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교역 회복, 글로벌 AI 산업 사이클 수혜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26년 0%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원유 생산 및 수출 회복 등으로 '27년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됨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24	2025	2026(E)	2027(E)
세계 경제성장률		3.5	3.5	3.0	3.4
구분	선진국	1.9	1.9	1.7	1.8
	미 국	2.8	2.1	2.3	2.2
	유로지역	1.0	1.4	0.9	1.2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5	4.5	3.8	4.5
	아시아신흥국	5.5	5.6	5.0	4.8
	중 국	5.0	5.0	4.6	4.1
	인 도	7.1	7.7	6.4	6.7
	ASEAN-5	4.8	4.5	4.1	4.3
	중남미	2.4	2.4	2.4	2.7
	중동 및 중앙아시아	3.1	3.7	0.7	6.5
	동유럽	3.8	2.0	1.9	2.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2	4.5	4.3	4.5
	세계 교역량증가율	3.7	5.0	3.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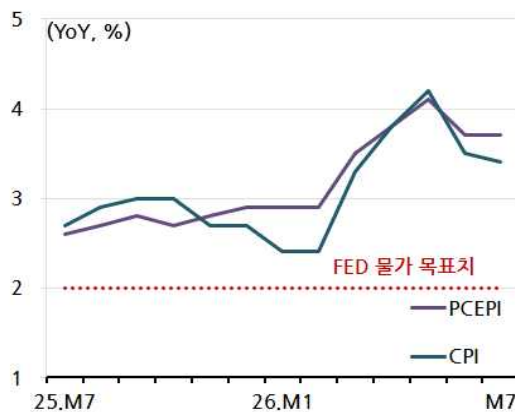
자료: IMF WEO(July, 2026).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 (금리) 미 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최근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률, 견조한 고용 등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화된 상황
 - ECB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시작한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BOJ는 긴축 기조를 강화할 전망
 - 한편, BOK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와 이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현재 금리 수준 3.00%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미국 PCEPI 및 CPI 증가율 추이 >



자료: BEA, BLS.

< IB의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

	2026	2027(E)				
	Q4	Q1	Q2	Q3	Q4	
FED (%)	3.75	3.75	3.75	3.50	3.50	
BOJ (%)	1.25	1.50	1.50	1.75	1.75	
ECB (%)	2.50	2.50	2.50	2.25	2.25	
BOK (%)	3.00	3.25	3.25	3.25	3.25	

자료: Bloomberg.

○ (환율)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및 수급 구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달러화는 美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美 신인도가 저하되면서 약세를 보일 전망

- 달러화 약세로 인해 유로화·엔화·위안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 상존
- 원화는 달러화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유입 지속 등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

< 달러인덱스 추이 >



자료: Bloomberg.

< IB 주요 환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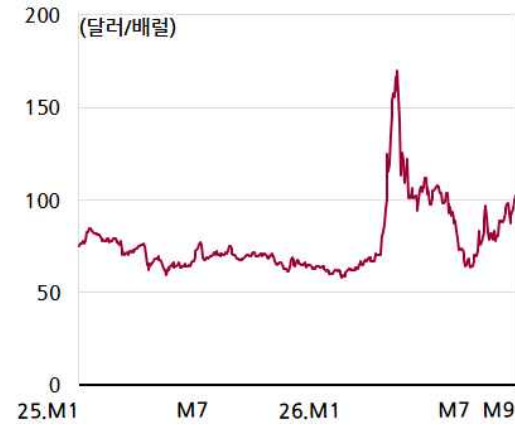
	2026	2027(E)			
	Q4	Q1	Q2	Q3	Q4
달러/유로	1.16	1.16	1.17	1.18	1.18
엔/달러	158	157	156	153	153
위안/달러	6.68	6.66	6.64	6.61	6.57
원/달러	1,422	1,412	1,400	1,366	1,383

자료: Bloomberg.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27년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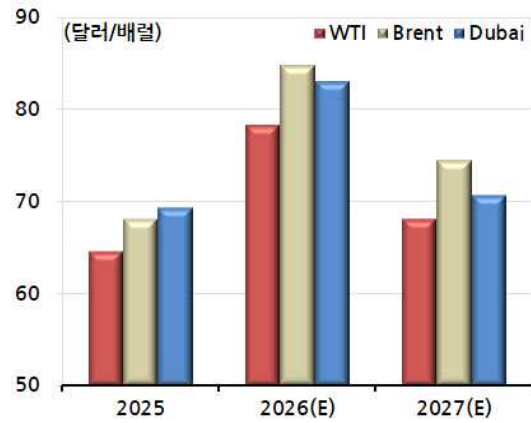
- 국제 유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완화, 구조적인 석유 수요 둔화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며 배럴당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수출 차질이 점차 해소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중동전쟁으로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중동 일부 산유국의 생산 시설 복구 지연 등으로 원유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
 -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 소비 증가세 둔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구조적인 석유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두바이유 가격 추이 >



자료: 한국석유공사.

< 국제 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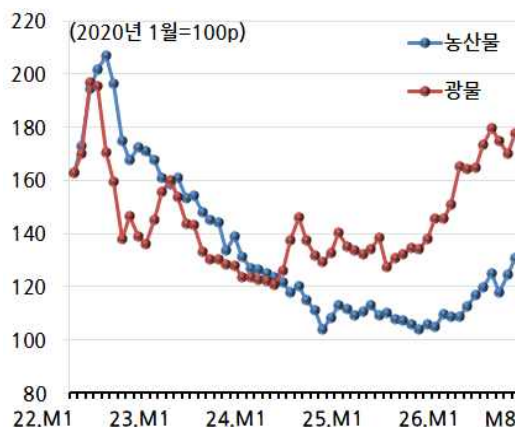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 원자재 가격 또한 중동전쟁으로 악화된 공급 여건이 정상화되며 하락할 전망

- 중동전쟁으로 악화된 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 생산 비용 감소, 교역 원활화 등 되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상 기후 등에 따른 가격 상방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음
- 품목별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흐름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광석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 선진국의 건설 수요 둔화, 공급 과잉 등으로 하락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반면,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비철금속은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신흥 산업 성장에 따른 견조한 수요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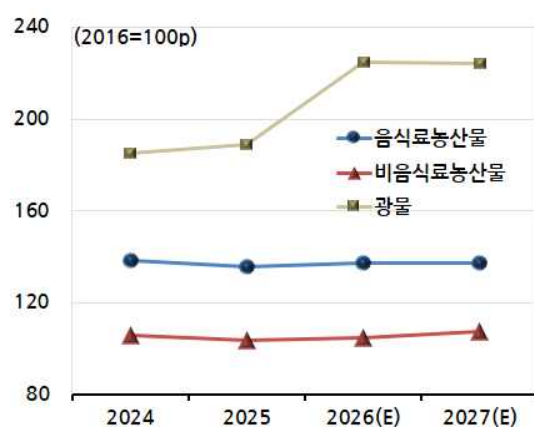
< 농산물 및 광물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를 이용한 지수화.

< 항목별 원자재 가격 지수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6).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¹⁾

① 경기(경제성장률)

○ 수출 부문 회복세의 내수 부문으로의 충분한 파급효과가 없으나, 총량 지표(Aggregate Indicator)는 전체 경제의 확장 국면을 시사

-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기비 0.6%로 지난 1분기의 고성장(전기비 1.8%)에서 증가 폭이 둔화

-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소비가 전기비 0.4% 증가(성장 기여도 0.2%p)에 그쳤으나, 수출이 1.3% 증가(성장 기여도 0.6%p)함
-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호황이 성장을 견인 중이나, 상대적으로 내수 부문의 확장력은 제한적인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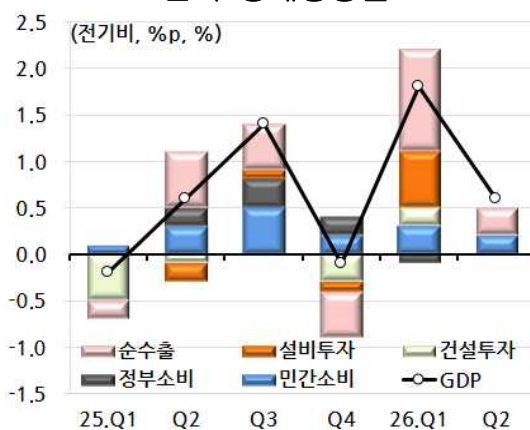
- 또한,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우상향 추세는 현재 경기 확장 국면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7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6월보다 높아졌으며, '25년 12월 또는 '26년 1월을 저점으로 상승하는 추세상에 위치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100.3p, 5월 99.9p, 6월 100.4p, 7월 10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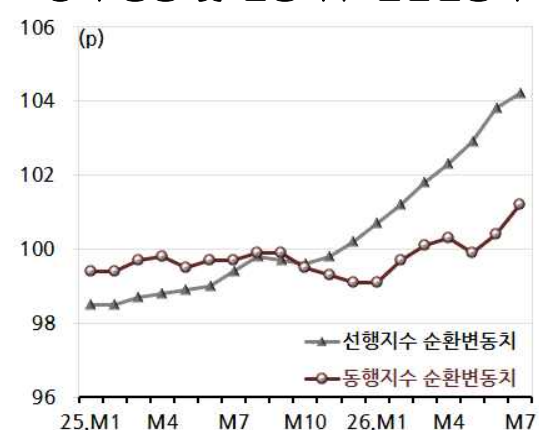
- 또한,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7월에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당분간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줌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MoDS.

1) 2장은 현대경제연구원(2026), “정책 과잉대응(Policy Overkill)으로 인한 K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6년 3분기)”, 경제주평, 26-16(통권 1017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췌함.

② 내수

○ (민간소비) 7월에 들어 예상 밖으로 소비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 선행지표의 의미를 가지는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침체

-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세로 전환

· 전월비(6월 대비) 및 전년동월비('25년 7월 대비) 기준 소매판매가 모두 6월 증가세에서 7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2.4%, 2분기 △1.8%, 4월 △3.7%, 5월 △0.1%, 6월 2.7%, 7월 △2.4%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3.2%, 2분기 2.2%, 4월 1.4%, 5월 1.4%, 6월 3.9%, 7월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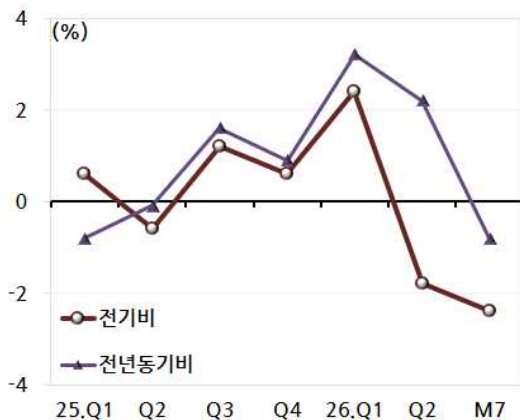
- 소비 항목별로 내구재 소비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비내구재 소비는 증가율이 소폭 둔화

· 내구재 소비 증가율(전년동월비)은 국내승용차(△8.4%), 통신기기(△16.3%) 등이 부진하여 6월 10.3%에서 7월에 △4.1%의 감소세로 전환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6.0%, 2분기 2.6%, 4월 1.7%, 5월 △4.2%, 6월 10.3%, 7월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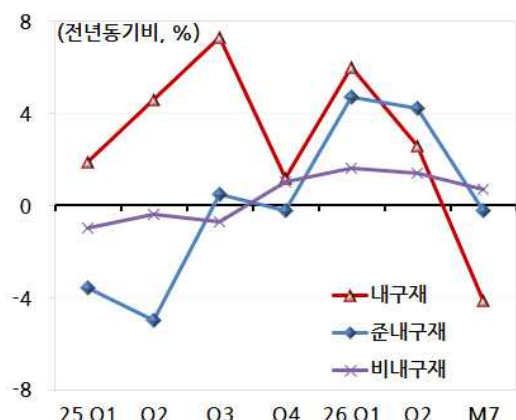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1.6%, 2분기 1.4%, 4월 0.5%, 5월 2.0%, 6월 1.8%, 7월 0.7%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MoDS.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MoDS.

○ (설비투자) ICT 섹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활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선행지표도 투자 회복이 지속될 것을 예고

- 7월 설비투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

- 7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비('25년 7월 대비) 24.9% 증가하였으며, 전월비(6월 대비)로는 7.5% 증가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9.8%, 2분기 13.2%, 4월 7.6%, 5월 9.3%, 6월 22.5%, 7월 24.9%

-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은 7월에 16.9%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6월(27.3%)보다는 다소 낮아짐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9.2%, 2분기 13.9%, 4월 17.1%, 5월 △1.7%, 6월 27.3%, 7월 16.9%

- 또한,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의 증가 폭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기계수주액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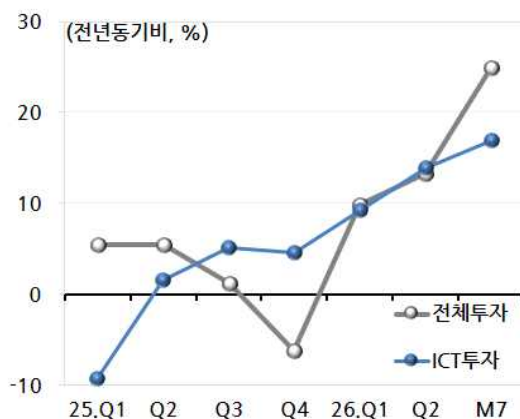
- 최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4월 20.1%, 5월 15.7%, 6월 27.6%, 7월 38.3%

- 국내기계수주액은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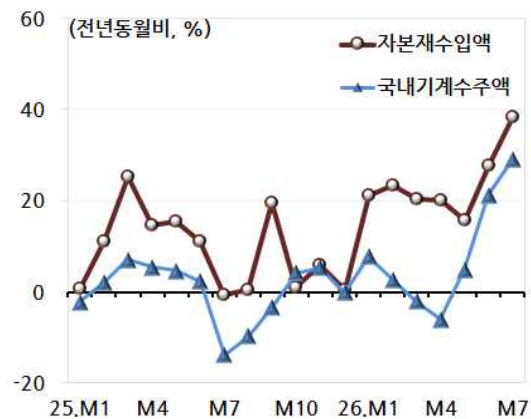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²⁾: 4월 △5.2%, 5월 26.6%, 6월 42.1%, 7월 18.0%

< 설비투자지수 및 ICT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MoDS.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MoDS,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2)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투자)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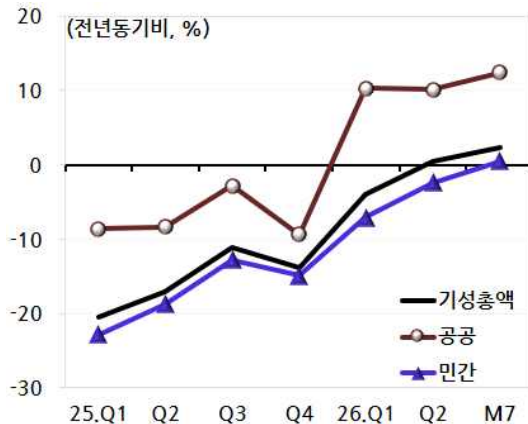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

- 7월 건설기성 증가율(전년동월비)은 2.4%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함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Delta 4.0\%$, 2분기 0.4% , 4월 $\Delta 2.1\%$, 5월 1.8% , 6월 1.5% , 7월 2.4%
- 발주자별로 공공 부문이 1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10.3% , 2분기 10.1% , 4월 10.8% , 5월 5.0% , 6월 13.5% , 7월 12.4%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Delta 7.1\%$, 2분기 $\Delta 2.4\%$, 4월 $\Delta 6.3\%$, 5월 1.3% , 6월 $\Delta 2.0\%$, 7월 0.5%

- 반면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6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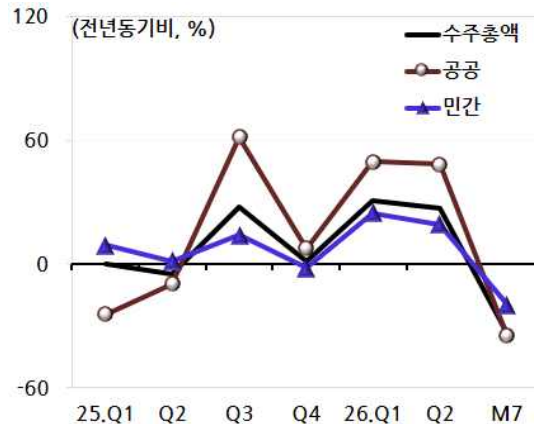
- 7월 건설수주 증가율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비 $\Delta 34.0\%$ 를 기록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30.7% , 2분기 27.1% , 4월 58.4% , 5월 70.3% , 6월 $\Delta 17.8\%$, 7월 $\Delta 34.0\%$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49.4% , 2분기 48.1% , 4월 82.1% , 5월 104.4% , 6월 9.9% , 7월 $\Delta 34.9\%$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24.6% , 2분기 19.0% , 4월 42.8% , 5월 63.8% , 6월 $\Delta 27.0\%$, 7월 $\Delta 19.7\%$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MoDS.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MoDS.

③ 대외 거래

○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 경기의 장기 호황을 견인

- 여전히 수출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물량이 아닌 수출 단가 상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 수출은 8월 전년동월대비 68.7%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25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감

※ 수출액 증가율(YoY): 4월 47.8%, 5월 52.9%, 6월 70.4%, 7월 63.0%, 8월 68.7%

· 다만, 8월 수출물량증가율은 $\Delta 9.8\%$ 를 기록하면서,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 경기 호조를 뒷받침함

※ 수출물량 증가율(YoY): 4월 $\Delta 17.8\%$, 5월 $\Delta 18.0\%$, 6월 $\Delta 3.3\%$, 7월 0.5% , 8월 $\Delta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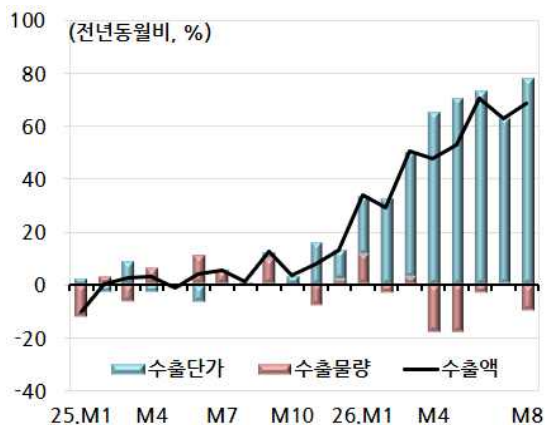
- 8월 중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제품이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 등은 부진한 모습

· 수출시장별로는 미국(전년동월비 89.3%), 중국(119.3%), 아세안(75.4%) 등 대부분의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209.0%), 무선통신기기(21.2%), 컴퓨터(419.5%), 석유제품(65.3%) 등 14개 품목이 증가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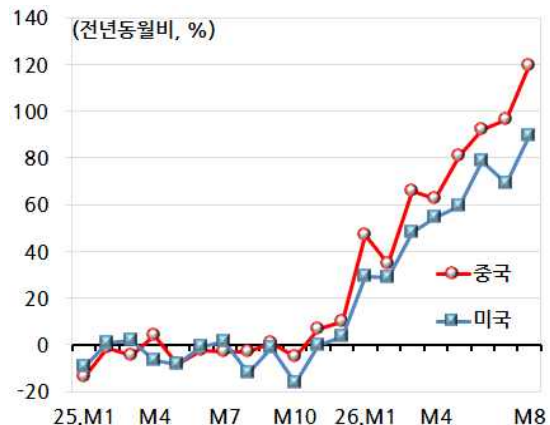
· 그러나, 자동차(전년동월비 $\Delta 29.8\%$), 자동차부품($\Delta 9.8\%$), 선박($\Delta 45.9\%$), 디스플레이($\Delta 4.7\%$) 등의 품목은 감소함

< 총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부.

<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부.

④ 물가 및 고용

○ (물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세 완화에도, 공공서비스 요금 급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

- 국제 유가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이 둔화

· 7월 수입물가는 환율('25년 7월 1,376.9원/달러 → '26년 7월 1,488.9원/달러)이 높은 수준이나, 국제유가(두바이유, '25년 7월 71.0달러/bbl → '26년 7월 77.1달러/bbl)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3월부터 이어진 전년동월대비 20%대 수준을 하회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4월 20.5%, 5월 25.4%, 6월 20.9%, 7월 18.7%

· 7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의 강한 기저효과(전년동월 대비 50.7%)가 작용하나 6월 전년동월대비 8.5%에서 7.7%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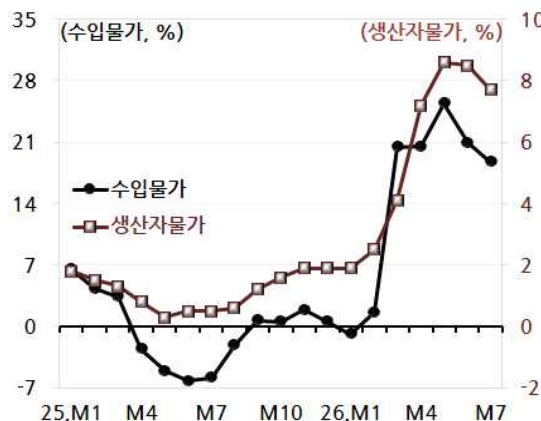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4월 7.2%, 5월 8.6%, 6월 8.5%, 7월 7.7%

- 석유류 가격 상승과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재진입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 전년동월비 2.8%에서 8월에 3.1%로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석유류 가격 상승(8월 전년동월대비 14.2%)과 더불어, 공공서비스 하위 항목인 휴대전화료(26.7%) 급등의 영향³⁾이 크게 작용한 데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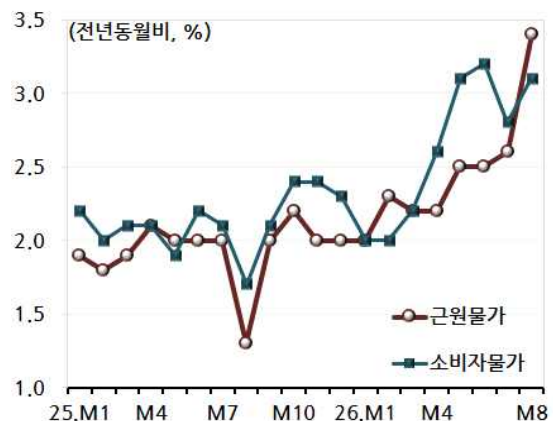
· 향후, 물가 안정 여부의 관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완화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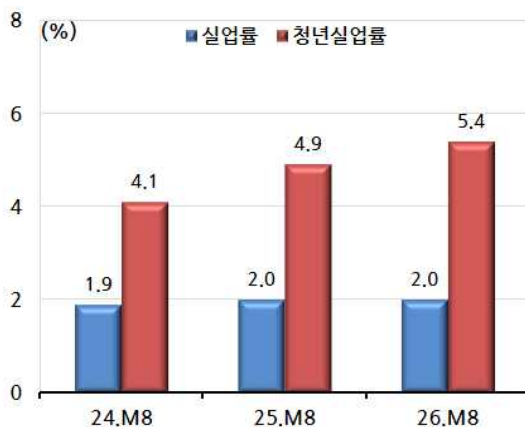
자료: MoDS.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3) 휴대전화료의 소비자물가 가중비율은 2.98%로 품목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9% 수준.

○ (고용) 전 연령층 실업 지표는 안정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장기화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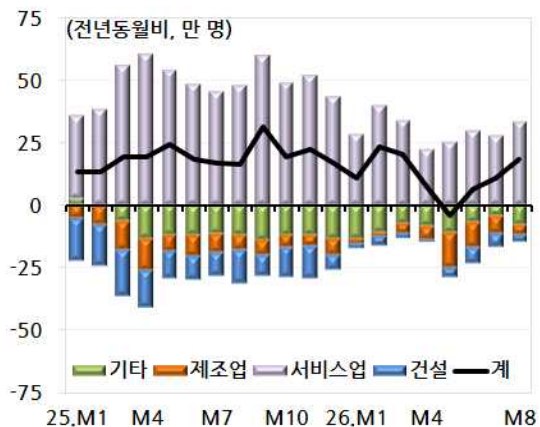
- 8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변화가 없으나 청년실업률이 전년동월보다 상승하였는데 특히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8월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25년 8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나,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5.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 8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8.4만 명으로 5월을 저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부문별로는 제조업·건설업,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 중인 것이 특징
 - 8월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18.4만 명으로 7월(10.8만 명)보다 상승함
 - ※ 취업자 수 증감(YoY): 5월 △4.0만 명, 6월 6.3만 명, 7월 10.8만 명, 8월 18.4만 명
 - 8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3.8만 명, 건설업 △3.2만 명이며,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33.5만 명 증가하였는데 상당 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증가(18.6만 명)에 기인함
 - 한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비 증감)가 '22년 11월 이후 만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비 증감)는 8월에 19.1만 명으로 전체 취업 시장을 주도함

< 8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MoDS.

< 주요 산업별4) 취업자 증감 >



자료: MoDS.

4)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업을 산업대분류 코드 G-S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기타는 광업(B), 유틸리티(D, E),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의 합계로 정의함.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 전망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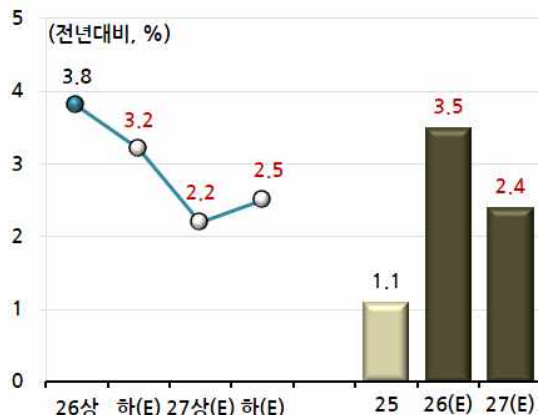
- ('26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국내 소득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
 -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으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외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부문의 회복,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더해지면서 총량 지표상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6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전망 시점 '26년 4월 전망보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함
- ('27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지경학적 리스크 완화와 세계 교역 회복 등으로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그 파급효과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
 - 중동 지역의 지경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세계 교역량도 개선되면서 '26년에 비해 대외 여건은 다소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AI 투자 지속 확대에 '27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기업 실적 및 가계 소득 여건 개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재정지출 등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전망
 - 다만, '26년 하반기 이후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금융 여건 악화 등은 외수 호조가 내수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국내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AI 투자 및 반도체 경기의 향방이 '27년 경기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3.5%	⇒	2.4%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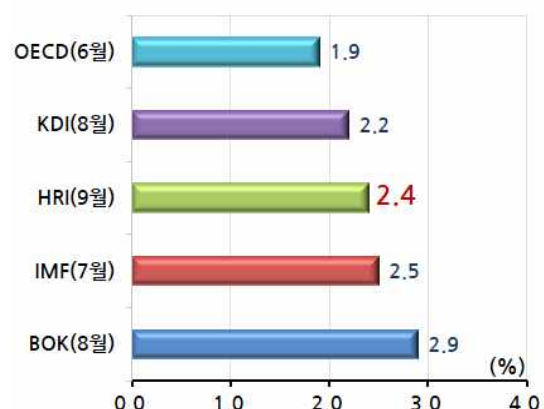
- '27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수출의 내수 부문으로의 일부 파급효과 및 정부의 확장 재정 등으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전망
 -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수의 경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820.9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로 내수 부문에도 일정 수준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가 발생하거나 중동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대될 경우 내·외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함
-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은 3.5%, '27년에는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겠으나 역기지 효과 등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2.4% 기록할 전망
 - '27년 성장률은 '26년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2%, 하반기 2.5%의 상저하고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6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치보다 **0.8%p 상향조정한 3.5%**가 될 것으로 수정전망함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7년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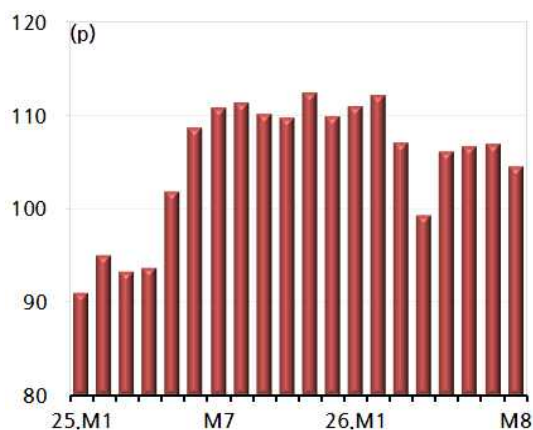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2.4%	⇨	2.0%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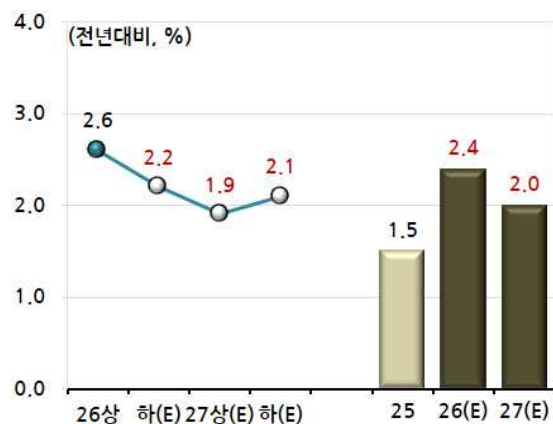
-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26년 중동전쟁 추경 효과, 실질총소득 증가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7년에는 3%대의 최저임금 상승률, 수출 호조의 낙수효과 등이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심리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6년 높은 증가세로 인한 역기저효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상승기에 돌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민간소비증가율은 '26년 2.4%에서 '27년 2.0%로 낮아질 전망
 - '27년 민간소비의 추세는 '26년 상반기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역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9%, 하반기 2.1%로 예상됨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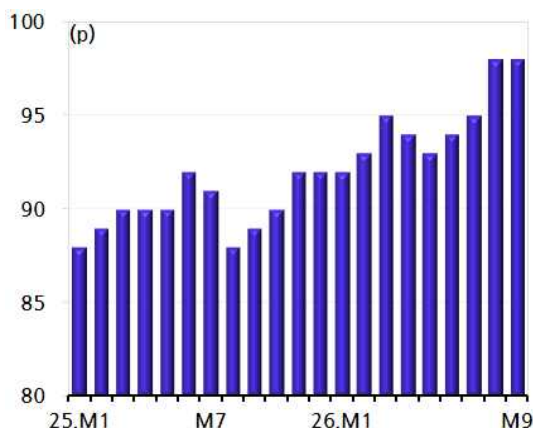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설비투자증가율	5.3%	⇒	3.7%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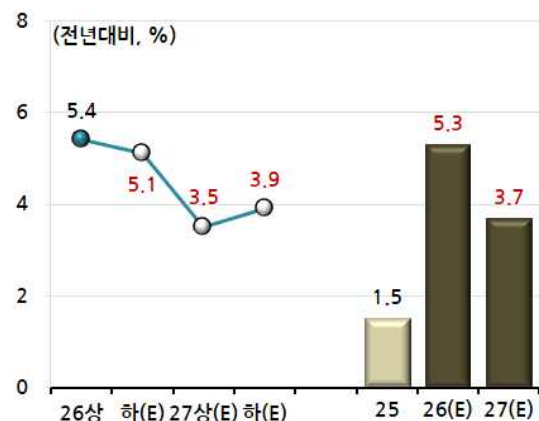
-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역기저효과 등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은 소폭 둔화할 전망
 - '26년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메가사이클 및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르는 생산설비 증설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남
 - '27년에도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 지속,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 본격화,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다만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여건 악화, 전년도 높은 증가세에 따른 역기저효과, 대미투자 본격화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여력 감소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7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6년 5.3%보다 낮아진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증가율은 '26년 상고하저의 흐름을 반영하여 상반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3.5%,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어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건설투자증가율	△1.0%	⇒	0.7%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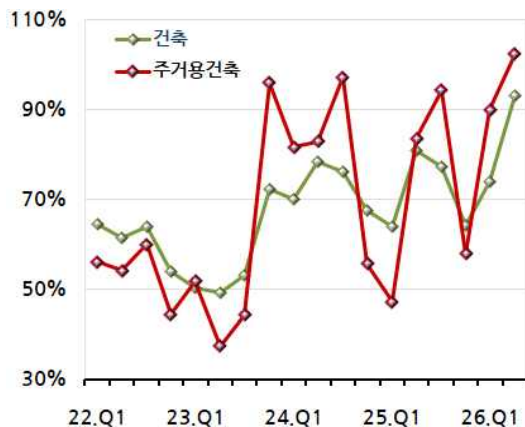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저점 통과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긍정적 여건과 부정적 여건의 혼재로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전망

- '26년 상반기 동행지표인 기성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수주도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27년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부문별로는 토목의 경우 '27년 SOC 예산이 28.9조 원으로 '26년 대비 4% 증가했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토목 부문의 확대가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건축 부문은 '26년 중 건축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축착공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착공 이연 물량이 점차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축 내 비주거 부문도 개선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함
- 하지만 높은 수준의 건설공사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등 그간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던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함

- 이에 따라 건설투자증가율은 '26년 △1.0%에서 '27년 0.7%로 미약하나마 증가세로의 전환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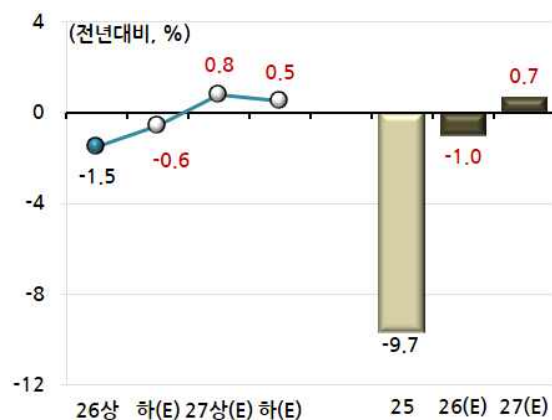
- '27년 건설투자의 추세는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0.8%, 하반기 0.5%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건축착공률(착공/허가비율) 추이 >



자료: 국토교통부.

< 건설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50.8%	⇒	2.9%
	(2026)		(2027)

- 수출증가율은 '26년 50.8%에서 '27년 2.9%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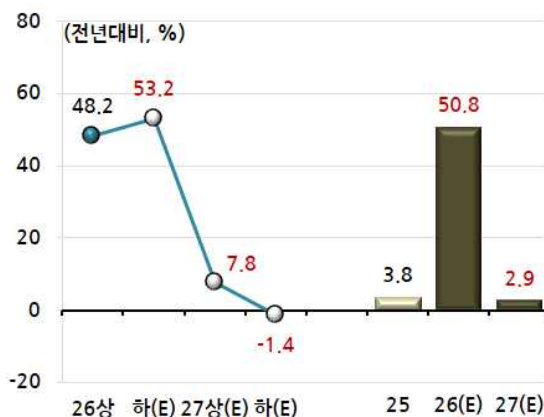
- '27년 상반기에도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겠으나, 역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AI 투자 수요 위축,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와의 공급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둔화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수입증가율	20.6%	⇒	4.2%
	(2026)		(2027)

- 수입증가율은 '26년 20.6%에서 '27년 4.2%로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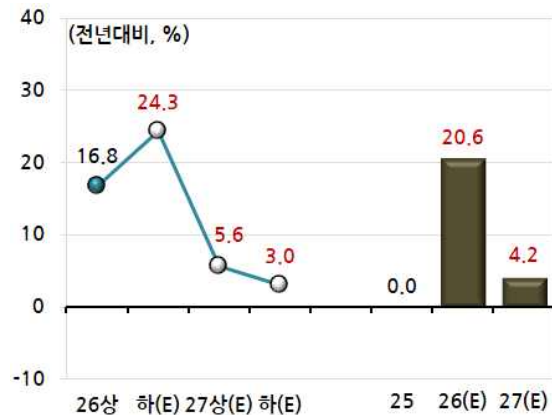
- '27년 상반기 5.6%, 하반기 3.0%로 수입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수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 수입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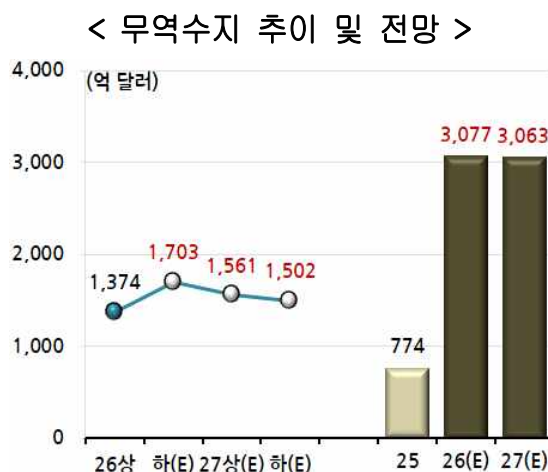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무역수지 3,077억 달러 ⇨ 3,063억 달러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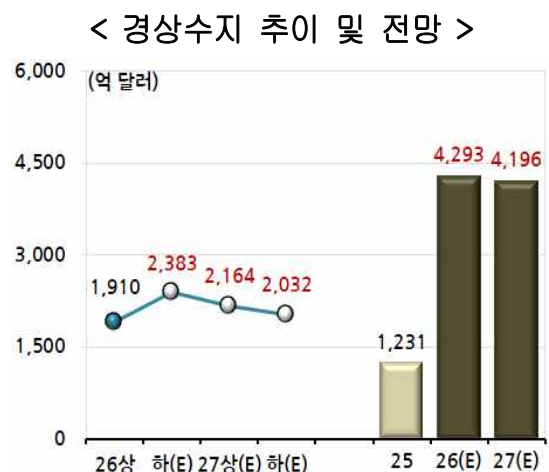
-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6년 3,077억 달러에서 '27년 3,063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전망
 - '27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561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그보다 소폭 낮은 1,502억 달러가 예상됨
 - 다만, 반도체 수급 리스크 등으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위축될 경우 흑자 규모가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함

경상수지 4,293억 달러 ⇨ 4,196억 달러
(2026) (2027)

- 경상수지 흑자는 '26년 4,293억 달러에서 '27년 4,19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27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16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2,032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는 상품수지무역수지 흑자 축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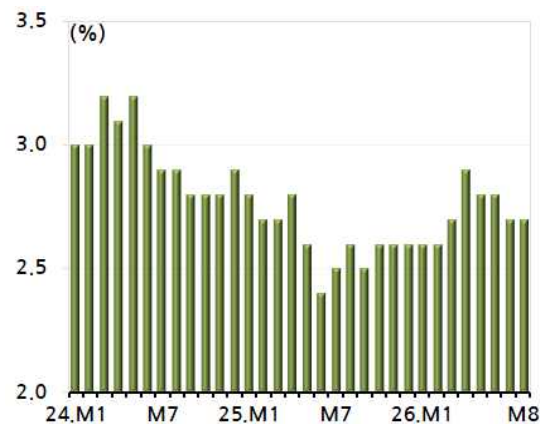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2.3%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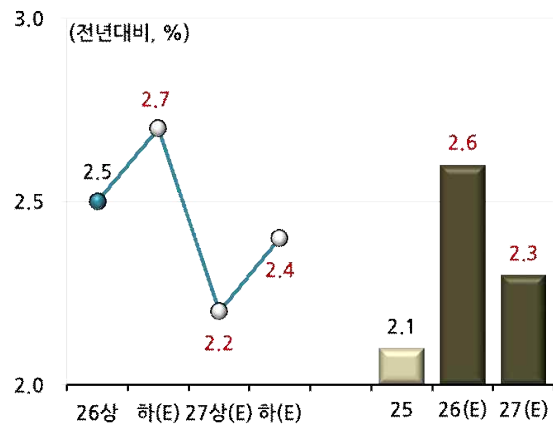
-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효과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또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300원 후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거나 이상 기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 한편, 수요측 물가 압력은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로의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년 2.6%에서 '27년 2.3%로 둔화할 전망이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2.2%, 하반기에는 소폭 높은 2.4%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됨

<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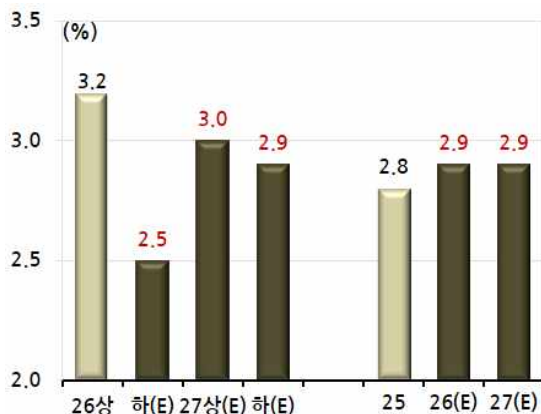
실업률	2.9%	⇒	2.9%
	(2026)		(2027)

- 실업률은 '27년 2.9%로 '26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7년 상반기 실업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소폭 낮은 2.9%가 예상됨
 - 경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큰 폭의 개선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갈 전망

취업자수증감	11만명	⇒	15만명
	(2026)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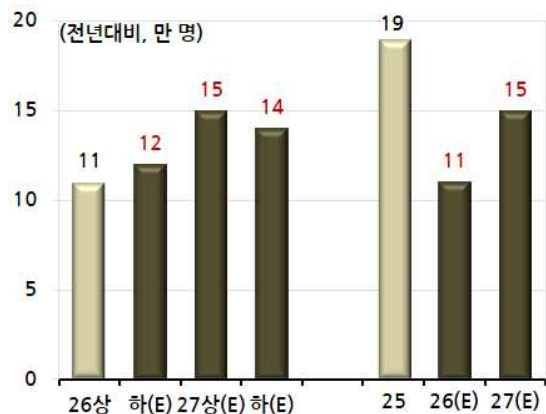
- 신규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는 '26년 11만 명, '27년 15만 명으로 소폭 확대될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5만 명, 하반기에는 14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기가 개선되면서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어나겠으나, 자동화, 무인화 등의 확산으로 주요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약화되면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 취업자수 증감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7년 한국 경제 전망표(2026년 9월) >

구 분		2025	2026			2027(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1.1	3.8	3.2	3.5	2.2	2.5	2.4
	민간소비 (%)	1.5	2.6	2.2	2.4	1.9	2.1	2.0
	건설투자 (%)	△9.7	△1.5	△0.6	△1.0	0.8	0.5	0.7
	설비투자 (%)	1.5	5.4	5.1	5.3	3.5	3.9	3.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1,231	1,910	2,383	4,293	2,164	2,032	4,196
	무역수지 (억 달러)	774	1,374	1,703	3,077	1,561	1,502	3,063
	수출증가율 (%)	3.8	48.2	53.2	50.8	7.8	△1.4	2.9
	수입증가율 (%)	0.0	16.8	24.3	20.6	5.6	3.0	4.2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2.5	2.7	2.6	2.2	2.4	2.3
실업률 (%)		2.8	3.2	2.5	2.9	3.0	2.9	2.9
취업자수 증감 (만 명)		19	11	12	11	15	14	15

4.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2027년 한국 경제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
- 특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반도체 경기 사이클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외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내수 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 동력 보완이 중요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AI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둘째, 재정정책은 건전성 확보와 성장 기반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 향후 재정 운용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이 성장잠재력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
- 단순한 이전 지출 확대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구조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이를 위해 AI, 첨단산업, 에너지 전환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희토류, 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 주거·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세

대 간 삶의 질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

셋째, 통화정책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성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 다만, 최근 경제 환경에서는 물가와 금융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성장 흐름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통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통화 스왑 재개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중장기 안정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됨

넷째, 소비 회복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체감 물가 안정화, 자산시장 불확실성 제거, 소비 촉진 세제 도입 등의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인 주거비 부담과 체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불공정 거래 개선,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생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서비스 요금은 경제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함
- 소비 촉진 측면에서는 친환경차·고효율 가전 교체 지원, 국내 여행 활성화 등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투자 회복을 통해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건설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민간 활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 7대 첨단기술(SEED)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비투자의 새로운 증가 모멘텀을 확보해야 함
-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환경·노동·금융·세제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여섯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기존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개척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K’ 마케팅 강화를 통해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특정 국가 및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후 복구 수요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역량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핵심 해상 운송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체 운송 경로 활용 지원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임

일곱째, 물가 불안 및 금리 상승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완도 필요하다.

- 에너지, 교통 등 생활 필수재 소비 지원책 유지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함
-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 재점검을 통해 채무 부실화 및 악성 채무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환경 변화가 취약계층에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도 필요함 **HRI**

주 원 연구본부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경제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이예람 선임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